

# 일개 광역시민의 음주 행태 특성의 관련요인

송정미\*, 홍지영\*\*, 이무식\*\*, 나백주\*\*, 이진용\*\*, 유세종\*\*\*\*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e-mail:yysj016@hanmail.net

## Related Factors to Characteristics of Drinking Behaviors in a Metropolitan City's Adult Residents

Jeong-Mi Song\*, Jee-Young Hong\*\*, Moo-Sik Lee\*\*, Baeg-Ju Na\*\*,  
Jin-Yong Lee\*\*, Se-Jong Yo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 요 약

이 연구는 음주 관련 요인을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건강행태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껄럽의 표준조사로 2007년 7월 30일부터 2달 간 시행하였고,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01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건강 행태관련 설문지를 이용하여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음주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난 1년간 음주여부를 결과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 19-29세와 30-39세에서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수입에 따른 분류에서는 300~499만원과 500만원 이상에서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별 95% 신뢰구간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를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여성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 19-29세와 40-49세에서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수입에 따른 분류에서는 300~499만원과 500만원 이상이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에 따른 분류에서 현재 흡연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대단히 많이 느낌과, 조금 느끼는 편임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2회 이상 음주여부를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여성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서 가정주부, 학생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에서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에서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업분류에서 가정주부와 학생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섭취 알코올 기준이 남, 여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자료를 통하여 남, 여 적정 음주 기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서론

알코올은 원시생활시대 때부터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고, 음료의 일종으로 종교의식이나 축제 및 향연에서 공동체 의식과 즐거움의 배가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또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1].

한국 문화권에서의 음주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술에 대한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인식은 물질로서의 개념보다는 음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음주 및 만취 행동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고 수용적이라고 하였다[2].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과도한 음주와 그로인한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고착화되어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와 과음,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전 연령층으

로 확산되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3].

과도한 음주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간질환, 소화계 질환 등의 신체적 질병이나 이혼, 가족 내의 불화,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 불면, 우울, 자살, 도박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4][5][6][7].

음주문제는 막대한 비용 손실과 더불어 음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자살, 원치 않는 성경험등과 같은 2차 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8][9].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파랑새플랜 2010에 절주를 포함시켜 2010년 까지 음주율의 감소, 음주 시작연령의 연기, 위험 음주행동의 감소, 그리고 음주운전관련 경험률의 감소 등 음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폐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10].

이 연구는 일개 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음주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음주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구명하고, 관련요인을 찾아내 절주프로그램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07년 7월 30일부터 2달간 시행하였고,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된 전문 면접원이 국내 여론 조사업체인 한국 갤럽의 표준조사 진행방법으로 전화설문 조사에 참여한 총 1,01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특성, 진료 및 근무 환경 인식, 적절한 예산배정 인식, 교육의 적절성 등으로 측정 변수로 이루어졌다.

### 2.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는 일개 광역시민의 음주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17.0v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건강행태 관련 특성 분포

대상자의 건강행태 관련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 유무는 현재 흡연이 212명(20.9%)으로 남자 198명(93.4%), 여자 14명(6.6%), 과거 흡연이 176명(17.4%)으로 남자 160명(90.9%), 여자 16명(9.1%), 비 흡연이 625명(61.7%)으로 남자 139명(22.2%), 여자 486명(77.8%)로 나타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은 예가 570명(56.3%)로 남자 283명(49.6%), 여자 287명(50.4%), 아니오는 443명(43.7%)로 남자 214명(48.3%), 여자 229명(51.7%)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435명(42.9%)로 남자 224명(51.5%), 여자 211명(48.5%), 보통이 430명(42.4%)로 남자 212명(49.3%), 여자 218명(50.7%), 나쁨이 148명(14.6%)로 남자 61명(41.2%), 여자 87명(58.8%)로 나타났다[표 1].

[표 1] 건강행태 관련 특성 분포

단위: 명(%)

변수	남	여	계
현재 흡연 유무*			
현재 흡연	198 (93.4)	14 ( 6.6)	212 (20.9)
과거 흡연	160 (90.9)	16 ( 9.1)	176 (17.4)
비 흡연	139 (22.2)	486 (77.8)	625 (61.7)
건강*			
예	287 (54.2)	243 (45.8)	530 (52.3)
아니오	210 (43.5)	273 (56.5)	483 (47.7)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예	53 (57.0)	40 (43.0)	93 ( 9.2)
아니오	444 (48.3)	476 (51.7)	920 (90.8)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34 (52.3)	31 (47.7)	65 ( 6.4)
많이 느끼는 편	128 (49.8)	129 (50.2)	257 (25.4)
조금 느끼는 편	243 (48.4)	259 (51.6)	502 (49.6)
거의 느끼지 않음	92 (48.7)	97 (51.3)	189 (18.7)
건강검진 경험			
예	283 (49.6)	287 (50.4)	570 (56.3)
아니오	214 (48.3)	229 (51.7)	443 (43.7)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224 (51.5)	211 (48.5)	435 (42.9)
보통	212 (49.3)	218 (50.7)	430 (42.4)
나쁨	61 (41.2)	87 (58.8)	148 (14.6)

\* p<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특성

성별에 따른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423명(85.1%),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381명(76.7%),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143명(28.8%), 여자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380명(73.6%),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278명(53.9%),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23명(4.5%)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에 따른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299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269명(70.2%),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214명(55.9%),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67명(17.5%), 300~499만원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262명(85.3%),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221명(72.0%),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50명(16.3%), 500만원 이상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167명(86.5%),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142명(73.6%),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31명(16.1%)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특성  
단위: 명(%)

변수	계	지난 1년간 음주여부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주2회 이상 음주여부
<b>성별</b>				
남자	497	423 (85.1)*	381 (76.7)*	143 (28.8)*
여자	516	380 (73.6)	278 (53.9)	23 ( 4.5)
<b>연령</b>				
19-29세	246	215 (87.4)*	184 (74.8)*	27 (11.0)
30-39세	248	212 (85.5)	168 (67.7)	44 (17.7)
40-49세	235	195 (83.0)	165 (70.2)	42 (17.9)
50세 이상	284	181 (63.7)	142 (50.0)	53 (18.7)
<b>교육 수준</b>				
중졸 이하	163	99 (60.7)*	75 (46.0)*	35 (21.5)
고졸	303	242 (79.9)	195 (64.4)	50 (16.5)
대계 이상	547	462 (84.5)	389 (71.1)	81 (14.8)
<b>직업</b>				
화이트 칼라	248	218 (87.9)*	191 (77.0)*	46 (18.5)*
블루 칼라	146	123 (84.2)	102 (69.9)	31 (21.2)
가정주부, 학생	389	283 (72.8)	213 (54.8)	22 ( 5.7)
농업 기타	230	179 (77.8)	153 (66.5)	67 (29.1)
<b>배우자 유무</b>				
있음	717	555 (77.4)*	446 (62.2)*	122 (17.0)
없음	296	248 (83.8)	213 (72.0)	44 (14.9)
<b>가계수입</b>				
299만원 이하	383	269 (70.2)*	214 (55.9)*	67 (17.5)
300~499만원	307	262 (85.3)	221 (72.0)	50 (16.3)
500만원 이상	193	167 (86.5)	142 (73.6)	31 (16.1)
<b>비만도*</b>				
정상체중 미만	795	639 (80.4)	522 (65.7)	118 (14.8)*
과체중 이상	197	146 (74.1)	120 (60.9)	46 (23.4)

p<0.05, p<0.01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 3.3 건강행태 관련 특성 별 음주 특성

현재 흡연 유무에 따른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189명(89.2%),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175명(82.5%),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75명(35.4%), 과거 흡연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143명(81.3%),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127명(72.2%),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51명(29.0%), 비흡연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471명(75.4%),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357명(57.1%),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40명(6.4%)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에 따른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예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442명(77.5%),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368명(64.6%),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104명(18.2%), 아니오의 경우 지난 1년간 음주여부 361명(81.5%),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291명(65.7%), 주 2회 이상 음주여부 62명(14.0%)로 나타났다[표 3].

[표 3] 건강행태관련 특성별 음주특성  
단위: 명(%)

변수	계	지난 1년간 음주여부	지난 한달간 음주여부	주2회이상 음주여부
<b>현재 흡연 유무</b>				
현재 흡연	212	189 (89.2)*	175 (82.5)*	75 (35.4)*
과거 흡연	176	143 (81.3)	127 (72.2)	51 (29.0)
비흡연	625	471 (75.4)	357 (57.1)	40 (6.4)
<b>스트레스 정도</b>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65	55 (84.6)	51 (78.5)*	18(27.7)*
많이 느낌	257	257 (79.4)	169 (65.8)	47(18.3)
조금 느끼는 편	502	502 (80.9)	334 (66.5)	69(13.7)
거의 느끼지 않음	189	189 (73.0)	105 (55.6)	32(16.9)
<b>건강검진 경험(최근2년)</b>				
예	570	442 (77.5)	368 (64.6)	104(18.2)
아니오	443	361 (81.5)	291 (65.7)	62(14.0)
<b>주관적 건강상태</b>				
좋음	435	351 (80.7)*	289 (66.4)	71 (16.3)
보통	430	347 (80.7)	279 (64.9)	73 (17.0)
나쁨	148	105 (70.9)	91 (61.5)	22(14.9)

p<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 3.4 음주기간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지난 1년간 음주여부,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주2회 이상 음주여부를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연령, 가계수입, 직업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4] 음주기간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지난 1년간		지난 한달간		지난 2주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성 <sup>*</sup>	1.504	0.854 - 2.652	2.072	1.297 - 3.313	3.304	1.776 - 6.149
연령						
50세 이상	1.000		1.000			
19-29세	3.639	1.810 - 7.315	2.678	1.473 - 4.870		
30-39세	2.191	1.265 - 3.795	1.246	0.775 - 2.001		
40-49세	1.620	0.974 - 2.694	1.622	1.022 - 2.575		
가계수입						
300만원 미만	1.000		1.000			
300~499만원	1.896	1.219 - 2.948	1.777	1.218 - 2.593		
500만원 이상	1.996	1.162 - 3.429	1.811	1.155 - 2.840		
직업						
농업&기타	1.000		1.000		1.000	
가정주부, 학생	0.921	0.529 - 1.604	0.799	0.492 - 1.299	0.523	0.284 - 0.962
블루 칼라	1.681	0.898 - 3.147	1.106	0.655 - 1.866	0.806	0.477 - 1.361
화이트 칼라	1.391	0.763 - 2.535	1.181	0.711 - 1.962	0.720	0.454 - 1.142
상수	0.828		0.429		0.067	

\* 여자를 참조 집단으로 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함

#### 4. 고찰 및 결론

알코올은 원시생활시대부터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고 음료의 일종으로 종교의식이나 축제 및 향연에서 공동체 의식과 즐거움의 배가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또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1]. 한국인의 음주 현황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대책이 꼭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음주여부에서는 연령에 따른 분류 40-49세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에서는 30-39세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난 1년간 음주여부와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난 1년간 음주여부,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 지난 2주간 음주여부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난 1년간 음주여부에서는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한 달간 음주여부에서는 과

거 흡연에서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주간 음주여부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여부에서는 지난 2주간 음주여부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한달간 음주여부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의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개 광역 시민을 대상으로 집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폭 넓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고, 직업분류에서 가정주부와 학생의 경우 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걱정 섭취 알코올 기준이 남, 여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자료를 통하여 남, 여 걱정 음주 기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최규주, 한국의 음주관련질환 사망률 변화와 알코올소비량 변화와의 관계. 보건학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 [2] 김광일, 서혜희, 박용천, 이승탁, 김이영.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조사. 정신건강연구 1989; 8: 118-132.
- [3] 홍승익. 도시지역 주민의 음주가 정신건강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2010.
- [4] 이정숙. 지역주민의 음주실태 및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9.
- [5] 이원재. 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6; 13(2): 97-114
- [6] 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 한국인의 음주양태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8; 19(10): 83-86.
- [7]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1999.
- [8] 천성수, 손애리. 한국인의 사인별 알코올기여도 산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8; 9(1): 1-12
- [9] 손애리, 박지은. 전국대학생의 비폭음자와 폭음자 간의 위험행동성 비교.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6; 7(1): 27-38.
- [10] 보건복지가족부. 알코올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과량새플랜. 2006.